

고려 궁성 서부건축군 출토 청자의 유구별 현황과 그 의미**

김윤정***

- I. 머리말
- II. 건물지군 내 유구별 출토 도자 현황
- III. 유구별 출토 청자로 본 건물지의 특이 상황과 성격
- IV. 유구별 청자 출토 상황으로 본 공간적 맥락과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 궁성 만월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의 왕실 문화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학술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발굴은 주로 서부건

* 본 논문은 2024년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주최한 2024년 제3회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개성 고려 궁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출토 도자 연구의 현황과 과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축군 영역에 국한되었지만 왕실의 생활공간이었다는 측면에서 왕실 문화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고려 궁성 서부건축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종류의 도자는 왕실에서 사용한 도자 문화의 실체를 확인한 최초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서부건축군에서 출토된 도자는 도기 약 152점과 자기 약 1182점으로 구분된다.¹ 자기의 종류는 고려청자, 조선 분청사기, 백자, 중국 자기로 나뉘지만 본고에서 다뤄질 주요한 분석 대상은 시골트렌치 조사만 하여 유구를 확인하지 못한 10건물지군을 제외하고 1건물지군부터 9건물지군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이다.

서부건축군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와 관련된 연구는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되다가 8차 발굴이 마무리된 이후에 종합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² 이외에도 명문이나 기호가 표기된 청자를 중점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³ 선행 연구는 건물지군별로 출토된 청자의 특징과 제작 시기를 파악하여 건물지군이 사용된 시기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부건축군은 10개의 건물지군으로 나누어서 발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는 각각 건물지군을 단위로 하여 출토된 자기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건물지군 내에서도 도자가 출토되는 유구는 건물지, 배수로, 축대, 계단, 마당 등으로 구분되고 유구의 성격과 위치에 따라서 출토되는 도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건물지군 내 유구별로 출토되는 도자의 시기와 특징을 분석한 후에 전체 건물지군에서 출토되는 도자의 양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구별로 출토된 자기를 분석하는 미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건물지군 내에서 자기의 출토량이 많은 유구들의 관계를 공간적 맥락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먼저, 건물지군을 구성하는 건물지, 배수로, 마당, 축대, 계단 등 유구별로 출토되는 자기의 수량, 제작 시기, 품질, 기종 구성 등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지군 내에서 청자의 출토 상황이 특이한 유구를 통하여 왕실용 청자의 선별 과정이 궁성에서 이루어졌던 상황 및 12세기 여요풍 청자의 사용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유구별 출토 도자의 수량과 주변 유구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건물지군 내에서 도자가 사용되는 주요 공간의 범위와 이동 경로를 통해서 그릇의 사용 정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본고에서 확인된 도자의 수량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이하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사이트와 보고서를 참고하여 도판과 도면, 제원이 제시된 예이다. 10건물지군은 시골조사로 진행되어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일러둔다.
 2 박지영, 「고려궁성(만월대) 출토 청자로 본 건물지군의 성격」, 『한국사학보』 79 (2020), pp. 36-59.
 3 박지영,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호 청자 고찰」, 『문화재』 52 (2019), pp. 123-138; 김귀한, 「개성 고려 궁성 출토 點刻銘 초기청자의 성격과 제작 배경」, 『인문과학연구논총』 45 (2024. 8), pp. 63-91.

II. 건물지군 내 유구별 출토 도자 현황

1. 1·2·3 건물지군⁴

1건물지군은 북쪽 중앙에 위치한 1-1호 건물지와 2호, 3호, 4호 건물지가 ‘口’자 형태를 이루고 그 오른쪽에 사다리꼴 형태의 1-7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별로 자기의 출토 수량을 보면 1-6호, 1-7호 건물지, 1-1호 축대가 주목된다(Table 1, Fig. 1). 1건물지군에서 출토된 자기는 <Table 1>에 유구별로 정리된 내용처럼 크게 10세기에서 13세기 초경까지 제작되었으

<Table 1> <1건물지군 내 유구별 자기의 출토 수량과 제작시기> Quantity and Production Period of Excavated Ceramics for Each Ruin Within Building Site Group No. 1

No. 1 Building Site Group (62m×44m)	Excavated Relics				Production Period	Front(Kan)×Side(Kan) / Length×Width	Area (㎡)
	Celadons	Earthen-wares	Roof Tiles and Others	Total			
Building Ruins No. 1-1	6	0	15	21	12th Century	3Kan×4Kan 4Kan×3Kan	597㎡
Building Ruins No. 1-6	24	0	0	24	10th-12th Century	2Kan×1Kan	61㎡
Building Ruins No. 1-7	15	0	0	15	10th-12th Century	1Kan×7Kan	288㎡
Drainage Ruins No. 1-2	7	0	0	7	12th-Early 13th Century	47m×86~198cm	
Drainage Ruins No. 1-3	8	0	1	9	11th-12th Century	47m×86~107cm	
Drainage Ruins No. 1-7	4	0	0	4	11th-Early 13th Century	9.6m×90cm	
Retaining Walls No. 1-1	21	0	0	21	11th-12th Century	263m×1.5~2m(H)	
Yard No. 1-1	0	5	6	11	11th-Early 13th Century	32m×20cm	628㎡

⁴ 1건물지군부터 3건물지군에서 출토된 도자에 대한 정보는 『개성 고려궁성』(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을 참고하였다.



Fig. 1. <건물지군 내 자기 출토 주요 유구 및 중심 건물지> Major Ruins with Koryŏ Celadon Excavations within the Building Sites (ruins correspond to those highlighted in Tables 1 to 7) (<http://www.manwoldae.org/>)

며, 대체로 11세기에서 12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출토된 기종은 대부분 접시와 발이고, 통형잔과 뚜껑, 매병, 잔탁 등이 소량 확인되며 특수한 예는 없다. 다만 1-6호 건물지에서 ‘상(尙)’명 청자 3편, ‘신(新)’명 청자 1편, 1-7건물지에서 진정(進井), 상정(尙井), 상(尙), 정(井) 자가 점각된 청자 4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점각명청자는 고려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제작된 초기 청자로 추정되고, 궁성으로 옮겨진 후에 명문을 점각하기 때문에 1건물지군이

고려 전기부터 사용된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

1건물지군에서 주요 전각은 아(亞) 자형의 1-1호 건물지이며, 1-6호와 1-7호 건물지는 홍루(紅樓)와 같은 부속 전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⁵ 다만 1-6호 건물지는 1건물지군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면서 61㎡로 전체 건물지 중에서도 작은 편이지만 청자의 출토 수량은 24점으로 가장 많다. 1-6호 건물지의 면적과 위치로 볼 때 1건물지군에서 사용되는 그릇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1호 축대에서 23점의 청자가 출토되었지만 축대의 높이로 볼 때 위쪽의 서북건축군에서 흘러 내려온 것으로 판단된다. 서북건축군은 서부건축군의 위쪽에 위치한 건물지군으로 동서로 긴 축대를 쌓아 단을 나누어서 서부건축군보다 지대가 높다. 서북건축군은 1, 2, 3 건물지군의 뒤쪽 축대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축대에서 출토된 도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IV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Fig. 1).

〈Table 2〉 <2건물지군 내 유구별 자기의 출토 수량과 제작시기〉 Quantity and Production Period of Excavated Ceramics for Each Ruin Within Building Site Group No. 2

No. 2 Building Site Group (50m×60m)	Excavated Relics				Production Period	Front(Kan)×Side (Kan) / Length×Width	Area (㎡)
	Celadons	Earthen-wares	Roof Tiles and Others	Total			
Building Ruins No. 2-2	1	0	0	1	Late 12th-Early 13th Century	7Kan×1Kan	166㎡
Drainage Ruins No. 2-2	18	0	190	208	10th-Early 13th Century /14th Century	19m×110cm	
Drainage Ruins No. 2-3	2	0	0	2	12th Century	15m×60cm	
Yard No. 2-1	1	0	12	13	12th-13th Century	19m×13m	260㎡
Retaining Walls No. 2-1	10	0	9	19	10th-Early 13th Century	30m×2~3.7m(H)	

5 박성진, 「고려 宮城 正殿 배치관계 연구-제2정전 건덕전과 주변 전각(殿閣)의 배치관계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37 (2012, 12), p. 238; 박지영, 앞의 논문 (2020), pp. 47-48.

2건물지군은 네 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지만 청자는 2-2건물지에서 청자뚜껑 한 점만이 출토되었다. 다만 2-1호 건물지의 북쪽에 위치한 2-2호 배수로에서 출토된 18점의 청자는 공간적 맥락에서 볼 때 2-1호 건물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2호 배수로에서 출토된 18점의 청자 중에 14점은 10세기에서 13세기 초 이전에, 5점은 14세기 전·중반 경에 제작된 상감 청자이다. 따라서 2건물지군은 개경 환도한 이후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1호 축대는 1건물지군의 1-1호 축대와 이어지기 때문에 출토된 자기는 서북건축군에서 흘러내려 온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Fig. 1).

서북건축군의 서편 상단에 위치하는 3건물지군은 총 8개의 건물지와 배수로,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유구별 청자의 출토 수량을 보면, 3-1호 건물지 3점, 3-2호 건물지 10점 3-8호 건물지 14점, 3-7호 건물지 9점, 3-3호 건물지에서 6점이 출토되었다(Table 3). 주요 전각에 해당하는 3-1호 건물지가 왕의 진영을 봉안하는 경령전(景靈殿)으로, 3-2호 건물지가 집희전(集禧殿)으로 추정되고 있다.⁶ 청자가 많이 출토되는 공간은 주요 전각보다 3건물지군의 서편에 위치하는 3-3호, 3-7호, 3-8호와 같은 부속 전각임을 알 수 있다. 3-8호 건물지는 주요 전각 서편 하단에 위치하면서 66㎡의 작은 면적으로 3건물지군의 그릇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Fig. 1).

3건물지군은 대부분의 유구에서 11세기에서 12세기 청자와 14세기 청자가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14세기에 사용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3건물지군이 경령전 영역으로 추정되지만 제향 의식과 관련되는 청자 기종이 특별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2건물지군과 3건물지군 사이에 위치한 3-5호 배수로에서 다완으로 사용된 한국식해무리굽완이 5점이나 출토되는 점은 특이하다.⁷ 다섯 점의 다완이 배수로에서 출토되어서 사용 장소를 특정하기 힘들지만 왕실의 진다(進茶) 의식과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1호 축대에서도 다량의 청자가 출토되지만 1, 2건물지군의 축대와 연결되면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서북건축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준, 「고려궁성 '서편건축군' 가-다 건물지의 성격」, 『개성 고려궁성』(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p. 155-157; 홍영의,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2012. 1), pp. 73-78.

7 3-5호 배수로에서 출토된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완은 보고서 I에서 유물 번호 251, 328, 329, 330, 332 임을 일러둔다.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참조.

〈Table 3〉 〈3건물지군 내 유구별 자기의 출토 수량과 제작시기〉 Quantity and Production Period of Excavated Ceramics for Each Ruin Within Building Site Group No. 3

No. 3 Building Site Group (55m×43m)	Excavated Relics				Production Period	Front(Kan)× Side(Kan) / Length×Width	Area (㎡)
	Celadons	Earthen-wares	Roof Tiles and Others	Total			
Building Ruins No. 3-1	3	0	2	5	12th Century/ 14th Century	5Kan×2Kan	223㎡
Building Ruins No. 3-2	10	0	130	140	12th Century/ 14th Century	3Kan×3Kan	190㎡
Building Ruins No. 3-3	6	1	71	78	12th Century/ 14th Century	6Kan×1Kan	128㎡
Building Ruins No. 3-5	2	1	38	41	14th Century	9Kan×1Kan	165㎡
Building Ruins No. 3-6	1	2	55	58	Late 12th-Early 13th Century	11/12Kan×1Kan	230㎡
Building Ruins No. 3-7	9	1	12	22	12th Century/ 14th Century	1Kan×7Kan	288㎡
Building Ruins No. 3-8	14	1	0	15	11th-12th Century	2Kan×1Kan	66㎡
Drainage Ruins No. 3-5	14	1	0	15	11th-Early 13th Century	28m×60cm (extant)	
Drainage Ruins No. 3-7	7	1	0	8	12th Century/ 14th Century	10.8m×40cm (extant)	
Yard No. 3-2	4	1	29	34	14th-Early 15th Century	25×11~15m	305㎡
Retaining Walls No. 3-1	46	5	211	262	11th-Early 13th Century /14th Century	24m×2~3.7m(H) (extant)	

2. 4·5·6 건물지군⁸

4건물지군은 1건물지군의 남쪽 회랑에 연접하여 1-4호 건물지와 맞닿은 상태로 축조되었다. 4-1호부터 4-4호 건물지는 사이사이에 마당이 배치되어 병렬로 이어진 구조이다. 4건물지

⁸ 4, 5, 6 건물지군에서 출토된 도자에 대한 정보는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Ⅱ』(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Ⅲ』(국립문화재연구소, 2020)와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을 참고하였다.

군도 1호부터 4호 건물지를 둘러싸고 있는 5호, 6호, 7호, 8호 건물지에서 주로 청자가 출토되었다. 4-7호 건물지에서 가장 많은 21점의 청자가 출토되었다(Table 4, Fig. 1). 출토된 청자들은 대체로 10세기에서 13세기 초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4-3호 건물지와 4-6호 건물지에서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로 추정되는 상감청자편이 한 점씩 확인되었지만 건물지의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보기에는 수량이 너무 적다.

〈Table 4〉 〈4건물지군 내 유구별 자기의 출토 수량과 제작시기〉 Quantity and Production Period of Excavated Ceramics for Each Ruin Within Building Site Group No. 4

No. 4 Building Site Group	Excavated Relics				Production Period	Front(Kan)×Side (Kan) / Length×Width	Area (㎡)
	Celadons	Earthen-wares	Roof Tiles and Others	Total			
Building Ruins No. 4-1	5	0	3	8	11th-13th Century	3Kan×1Kan	65㎡
Building Ruins No. 4-2	2	0	2	4	12th Century	3Kan×1Kan	90㎡
Building Ruins No. 4-3	1	0	0	1	Early 15th Century	3Kan×1Kan	93㎡
Building Ruins No. 4-4	2	0	1	3	10th-11th Century/13th Century	3Kan×1Kan	93㎡
Building Ruins No. 4-5	7	0	21	28	10th-12th Century	7Kan×1Kan	244㎡ (extant)
Building Ruins No. 4-6	7	3	21	31	12th Century/Late 14th Century	3Kan×1Kan	76㎡ (estimated)
Building Ruins No. 4-7	21	0	325	346	11th-Early 13th Century	3Kan×1Kan	107㎡
Building Ruins No. 4-8	8	5	58	71	11th-Early 13th Century	7Kan×2Kan	222㎡
Yard No. 4-3	6	0	9	15	10th-Early 13th Century	6m×13.5m	83㎡

4건물지군의 아래쪽으로 이어진 5건물지군은 대형 계단, 문지, 배수로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5건물지군은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연결 통로였기 때문에 북쪽의 4건물지군, 남쪽의 6건물지군, 동쪽의 중심건축구과의 관련성을 생각해야 한다. 출토된 청자는 대부분 10세기경부터 13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5-1호 대형계단에서만 유일하게 14세기에서

15세기 초의 상감청자편 5점이 출토되었다. 4와 6건물지군에서 14세기 청자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계단에서 출토된 상감청자편은 중심건축군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1호 대형 계단에서 출토된 청자 53점은 그 주변에 위치한 4-8호 건물지, 6-11호 건물지, 중심건축군에서 흘러내려 왔을 가능성이 크다. 5-3호 마당과 5-2호 배수로는 6-11호 건물지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토된 청자는 6-11호 건물지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Table 5, Fig. 1). 이와 관련하여 IV장에서 5, 6건물지군의 유구별 출토 상황을 공간적 맥락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Table 5〉〈5건물지군 내 유구별 자기의 출토 수량과 제작시기〉Quantity and Production Period of Excavated Ceramics for Each Ruin Within Building Site Group No. 5

No. 5 Building Site Group [30m×35m]	Excavated Relics				Production Period	Front(Kan)× Side(Kan) / Length×Width	Area (㎡)
	Celadons	Earthenwares	Roof Tiles and Others	Total			
Large Staircase No. 5-1	53	5	113	171	10th-13th Century/14th-Early 15th Century	10,7m×13,4m ×2,5m(H)	
Large Staircase No. 5-2	5	0	40	45	11th-Early 13th Century	12,4m×5,8m ×2,5m(H)	
Yard No. 5-1	6	0	125	131	12th-13th Century	25m×8,1m	
Yard No. 5-3	5	0	7	12	10th-12th Century	7,0m×12,5m	
Culvert Ruins No. 5-1	5	0	0	5	12th-Early 13th Century	around 27m×80cm	
Drainage Ruins No. 5-2	30	5	13	46	10th-13th Century	28,7m×58cm	
Sidewalk Ruins No. 5-2	5	1	29	35	12th-13th Century	3,3m×2,5m (extant)	

6건물지군은 크고 작은 13개의 건물지와 마당, 배수로, 우물, 축대 등 서부건축군에서 가장 많은 유구가 확인되었다. 6-1호 건물지가 주요 전각으로 추정되며, 그 주변을 ‘ㄱ’자 형태로 둘러싼 6-11호, 6-4호, 6-12호 건물지에서 다량의 도자가 출토되었다. 6건물지군의 모든 유구에서 출토된 청자는 대체로 13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예가 없기 때문에 개경 환도 이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6-11호 건물지에서 고려 전기의 점각명청자가 37점으로 다량 출토되는 반면에 6-1호, 6-4호, 6-8호, 6-10, 6-12호 건물지, 6-3호 마당, 6-1호 축대는 12세

기 청자들이 중점적으로 출토되었다(Table 6, Fig. 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6-11호 건물지가 10세기에서 11세기경에 처음 지어지고 나머지 건물들은 12세기경에 증축되거나 확장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물지는 6-4호와 6-11호이다. 6-4호 건물지는 청자 46점, 도기 11점이 출토되어서,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종과 품질도 특이하다. 뚜껑[15점], 향로[2점], 투각 기대[1점] 등 다른 유구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기종이 포함되어 있다. 통형잔, 사이호, 합, 주자, 매병 등 각종 기종의 뚜껑이 15점이나 출토된 점도 주목된다. 6-11호 건물지는 供, 上, 供, 尙, 中尙, 竹, 新, 玄 등의 명문이 짐작된 37점의 청자가 출토되어서 10세기경부터 사용된

〈Table 6〉〈6건물지구 내 유구별 자기의 출토 수량과 제작시기〉Quantity and Production Period of Excavated Ceramics for Each Ruin Within Building Site Group No. 6

No. 6 Building Site Group (51m×62m)	Excavated Relics				Production Period	Front(Kan)×Side(Kan) / Length×Width	Area (㎡)
	Celadons	Earthenwares	Roof Tiles and Others	Total			
Building Ruins No. 6-1	4	1	15	20	12th-13th Century	3Kan×3Kan	212㎡
Building Ruins No. 6-4	46	11	22	79	12th-Early 13th Century	5Kan×2Kan	306㎡
Building Ruins No. 6-8	10	0	15	25	12th-Early 13th Century	3Kan×1Kan	94.9㎡
Building Ruins No. 6-10	6	0	0	6	12th-Early 13th Century	2Kan×1Kan	34.4㎡
Building Ruins No. 6-11	45	2	3	50	10th-12th Century	12Kan×1Kan	317.7㎡
Building Ruins No. 6-12	18	0	11	29	12th-Early 13th Century	1Kan×12Kan	341.4㎡
Yard No. 6-2	9	1	30	40	10th-12th Century	18.9m×3.2~4.5m	
Yard No. 6-3	3	4	14	21	12th-Early 13th Century	2.9m×11.6m	
Drainage Ruins No. 6-5	17	0	5	22	10th-12th Century	12.9m×60cm	
Well Ruins No. 6-1	17	1	61	80	10th-Early 13th Century	110cm (D)	
Retaining Walls No. 6-1	24	0	242	266	12th-Early 13th Century	62.4m	

것으로 추정된다.⁹ 6-11호에서 출토된 45점의 청자 중에 기종이 확인되는 예가 베개편 1점, 발편 4점, 완편 6점, 접시편 28점으로 주요 기종은 접시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III장과 IV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볼 것이다.

3. 7·8·9 건물지군¹⁰

7건물지군은 유구의 파손이 심하여 건물의 윤곽이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7건물지군의 우물 주변에서 60여점의 자기편이 출토되었다(Fig. 1).¹¹ 7건물지에서는 1330년의 ‘庚午’명편과 1332년의 ‘壬申’명편 청자를 포함하여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경에 제작된 매병, 발, 접시 등도 17점 확인되었다. 이외에 나머지 청자편은 12세기에서 13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7건물지군은 12세기부터 사용되어서 개경 환도 이후에도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건물지군에서 출토된 12세기 청자는 기종, 문양 소재, 제작 양식에서 다른 건물지군에서 확인되지 않는 왕실용 청자의 진수를 보여주며 IV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8건물지군은 3건물지군의 남쪽 기단과 맞물려 축조되었으며, 건물지 6동, 마당 4개, 축대 2개,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청자의 출토 수량은 8-5호 건물지에서 18점, 8-3호 마당에서 21점으로 8건물지군에서 많다. 청자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11세기에서 13세기 초경과 14세기로 구분되어 8건물지군은 3건물지군과 함께 고려후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8-1호 축대는 40m 내외로 길고 8-5호, 8-6호 건물지와 맞닿는 형태이다(Table 7, Fig. 1). 8-6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없는 점을 볼 때 축대에서 출토된 자기는 8-5호 건물지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건물지군에서 자기가 사용된 주요 공간은 8-5 건물지와 8-3호 마당으로 추정된다.

9 김귀한, 앞의 논문, pp. 84-85. 김귀한의 글에서는 서부건축군 출토 점각명 청자의 제작 시기를 940년대부터 11세기 초 사이로 추정하였다.

10 7, 8, 9 건물지군에서 출토된 도자에 대한 정보는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Ⅱ』(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Ⅲ』(국립문화재연구소, 2020)와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을 참고하였다. 다만 9건물지군은 출토된 도자의 수량이 너무 적어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1 7건물지군에서 출토된 청자에 대한 정보는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과 고려궁성 3차 보고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과 3차 보고서에 기재된 출토 유물 자료를 모두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Table 7〉 〈8건물지군 내 유구별 자기의 출토 수량과 제작시기〉 Quantity and Production Period of Excavated Ceramics for Each Ruin Within Building Site Group No. 8

No. 8 Building Site Group [60m×10~32m]	Excavated Relics				Production Period	Front(Kan)× Side(Kan) / Length× Width	Area (㎡)
	Celadons	Earthen-wares	Roof Tiles and Others	Total			
Building Ruins No. 8-5	18	1	3	21	12th-14th Century	3Kan×2Kan	99.4㎡
Yard No. 8-1	2	3	33	38	12th-14th Century	13.6m×10.7m	147.4㎡
Yard No. 8-2	11	0	258	269	12th-Early 13th Century /14th Century	14.5m× 1.5~5.4m (extant)	147.4㎡
Yard No. 8-3	21	1	105	127	12th-Early 13th Century /14th Century	17.1m× 1.1~11.2m (extant)	91.5㎡
Retaining Walls No. 8-1	14	2	2	18	11th-13th Century	around 40m	

Ⅲ. 유구별 출토 청자로 본 건물지의 특이 상황과 성격

서부건축군은 총 10개의 건물지군으로 구획되어 발굴 조사되었지만 각 건물지군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규명되기에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II장에서 서부건축군의 건물지군 내 유구별 도자의 출토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출토된 도자를 근거로 건물지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유구는 많지 않다. 출토된 청자의 기종이나 품질, 문양 등에서 특이점을 보이는 4-7호, 6-4호, 6-11호 건물지, 7건물지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4-7호 건물지는 4건물지군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공간으로 중심건축군과 맞닿은 위치이다(Fig. 1). 4-7호 건물지에서 21점의 자기가 출토되었으며, 이 중에 포개구이 상태의 청자편과 청자기와편 2점이 포함된 점이 특이하다(Fig. 2, 3). 포개구이편은 발 1점과 접시 3점이 변조시에 유약이 늘러 붙고, 유리질화 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Fig. 2). 이러한 청자편은 원칙적으로 가마터에서 폐기되어야 하지만 궁성까지 운반되었다는 점에서 왕실용 자기의 수취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왕실용 자기는 생산된 가마터의 발굴 상황을 볼 때, 강진 사당리 요지나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기본적으로 품질의 선별과정을 거친다고 추정하였다.¹² 이러한 선행 연구는 가마터 유적만을 대상으로 하여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왕실용 청자가 소비된 궁성 유적의 발굴 결과를 통해서 그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왕실로

공급될 청자가 가마 안에 재입되면 가마 안에서 구워진 모든 그릇이 일괄적으로 궁성으로 보내지고 그 이후에 선별과정을 거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반 출토된 청자 기와편도 서부건축군에서 사용된 기와가 아니기 때문에 가마 안에서 함께 번조된 그릇들과 한꺼번에 보내져서 4-7건물지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³



Fig. 2. <4-7호 건물지 출토 포개구이 청자편> Fragments of Stack-fired Celadon Excavated from Building Ruin No. 4-7 (<http://www.manwoldae.org/>)

Fig. 3. <4-7호 건물지 출토 청자 기와편> Fragments of Celadon Roof Tiles Excavated from Building Ruin No. 4-7 (<http://www.manwoldae.org/>)

4-7호 건물지 출토 청자의 특이한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구가 6-4호 건물지이다. II장에서 이미 6-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수량, 품질, 기종이 특이하다고 설명하였다. 출토된 46점의 청자가 품질을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뉘지는 특이한 정황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6-4호 건물지에서는 출토된 46점의 청자 중에 23점은 품질이 불량하다 (Fig. 4). 소비지에서 출토되는 청자 중에 유약이 자화(磁化)되지 못한 예는 많지만 6-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불량한 품질의 청자 23점은 대부분 유면이 불에 녹은 것처럼 끓어 있고 잡물이 붙어 있어서 거칠게 보인다. 그러나 청자편 23점은 대부분 규석

12 李喜寬, 「康津 沙堂里窯場 瓷器製作의 實狀과 特質」, 『해양문화재』 11 (2018), pp. 117-124. 왕실용 청자의 제작지로 추정되는 강진 사당리요지 가구역에서 확인된 자기편 퇴적층이 엄격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자기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전현기, 「부안 유천리 청자 가마와 공간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pp. 92-96.

13 서부 건축군에서 확인된 5점의 청자기와는 1-3 배수로, 4-7호 건물지 남쪽 와적층(중심건축군 서쪽 축대), 6-1호 축대, 5-1호 계단에서 출토되어서 중심건축군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받침을 사용하였고, 완, 접시, 뚜껑류, 주자, 화형잔, 투각 기대 등 고급 기종이 다양하게 확인된다. 즉, 품질이 불량한 청자들은 원래 고급 청자로 제작되는 것이었지만 잘 못 구워졌거나 불에 녹아서 유면 상태가 매우 거칠고 잡물이 많이 붙은 상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면의 상태 때문에 건물의 화재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나머지 23점의 품질은 매우 양호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⁴ 양호한 품질의 청자편 23점 외에도, 북송대 경덕진요 청백자편 1점과 도기호 11점도 불에 유약이 녹았거나 그을린 흔적이 없이 상태가 좋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3점의 불량한 품질의 청자가 가마 안에서 번조시에 잘 못 구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Fig. 4. <6-4호 건물지 출토 불량한 품질 청자 23점> Twenty-three Pieces of Low-quality Celadon Excavated from Building Ruin No. 6-4 (<http://www.manwoldae.org/>)

¹⁴ 보고서에서 6-4호 건물지의 화재 흔적이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서부건축군 발굴 현장에서 일부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전언은 있기 때문에 향후 현장 상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Fig. 5. <청자상감운학문완편> Fragment of a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s and Cranes Design, 12th Century, Koryŏ, Height 5cm, Mouth Diameter 16.3cm, Base Diameter 4.3cm, Excavated from Building Ruin No. 6-4 in the Western Building Group (<http://www.manwoldae.org/>)



Fig. 6. <청자상감운학문완>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s and Cranes Design, 12th Century, Koryŏ, Height 5cm, Mouth Diameter 16.2cm, Treasure No. 1024,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Kŏnhŭi 55 (<https://www.emuseum.go.kr/main>)

청자편 23점 중에 <청자상감운학문완편>은 현재 보물1024호로 지정된 <청자상감운학문완>과 조형적으로 거의 유사하여 품질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Fig. 5, 6). 6-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운학문완편>은 내면에 압출양각된 모란당초문, 외면에 운학문을 상감하였고, 굽바닥에는 규석을 받치고 ○문이 찍혀 있다(Fig. 5). 기형, 문양, 장식기법, 규석받침, ○문 등의 특징은 보물1024호 <청자상감운학문완>과 완벽하게 동일하여 같은 가마에서 변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Fig. 6). 그러나 두 유물을 비교하면 6-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상감청자완편은 유면이 거칠고 굽은 흔적 등으로 보아서 심하게 잘못 변조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Fig. 5).

굽바닥에 ○문이 찍힌 청자는 과주 혜음원지, 희종(1181~1237) 석릉, 원덕태후(?~1239) 곤릉 등 주로 왕실 관련 유적에서 출토되며, 대부분 규석 받침을 사용한 고급 청자이다.¹⁵ 서부건축군에서 굽바닥에 ○, ◎문이 표기된 청자는 17점이 출토되었으며 모두 규석 받침을 사용하였고 품질이 좋다.¹⁶

문제는 ‘번조가 잘못되어 품질이 불량한 청자들이 왜 궁성까지 왔을까’이다. 앞서 살펴본 4-7호 건물지의 경우처럼, 가마 안에 왕실용으로 재입된 청자들이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왕실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다. 6-4호 건물지는 자기뿐만 아니라 11점의 도기호도 서부건축군 내 다른 유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수량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6-4호 건물지는 가마터에서 수취된 왕실용 청자를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에 의하면, 북송대 황실의 자기고(瓷器庫)에 공납된 자기는 궁성 안에서 흠[缺]이나 금[豐]이 간 수에 따라서 선별되었다. 이 때 선택된 자기는 내고(內庫)에 비축되는 봉장(封樁)과 황실의 제반 활동에서 공진(供進)으로 사용되었다.¹⁷ 따라서 4-7호와 6-4호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자기의 양상을 볼 때, 왕실용 청자의 품질을 선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의 견해처럼 가마터에서 선별하는 방법과 함께 가마 안에 재입된 왕실용 청자가 한꺼번에 궁성으로 보내진 이후에 선별하는 과정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건물지군은 서부건축군 전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영역이면서 출토된 도자의 수량도 가장 많다. 6-4호 건물지에서 청자 46점, 도기호 11점, 6-11호



Fig. 7. <6건물지군에서 청자 출토 주요 건물지> Major Building Ruins where Celadon was Excavated from Building Site Group No. 6 (<http://www.manwoldae.org/>, Edited by the author)

15 한성욱, 「高麗 陰刻 ○ 文과 ◎ 文靑瓷의 研究」, 『고문화』 70 (2007. 12), pp. 135-141, 굽 안바닥에 ○, ◎ 등의 기호가 찍힌 청자는 강진 사당리 8호, 23호, 27호 요지 등에서 확인된다. 이 요지들에서 모두 왕실용 청자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 ○, ◎문이 표기된 청자는 3-1호 축대 2점, 6-4호 건물지 2점, 6-12호 건물지 3점, 3-3호 건물지, 5-1호 대형 계단, 5-2호 배수로, 5-2호 보도시설, 6-2호 마당에서 각각 1점, 10호 건물지군 4호 트렌치 3점, 6호 트렌치 2점, 대형계단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17 김윤정, 「北宋代 貢瓷에 대한 인식과 定窯와 汝窯의 성격」, 『중국사연구』 98 (2015), pp. 70-74.

건물지에서 청자 45점, 도기호 2점이 출토되었다. 6-12호 건물지는 2개의 아궁이가 확인되어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으로 판단되었음에도 출토된 청자는 18점으로 많지 않다(Table 6, Fig. 7). 따라서 6-4호, 6-11호 건물지는 일반적인 건물지와 다른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건물지가 어떤 성격의 공간이었는지를 주요 전각과의 관계나 출토된 청자를 통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6건물지군의 주요 전각은 6-1호 건물지이며, 『고려도경』의 기록에 근거하여 장령전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⁸ 6-1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보면 6-4호 건물지는 바로 오른쪽에, 6-11호 건물지는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Fig. 7). 두 건물지가 주요 전각과 매우 가까우면서 자기의 출토량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Fig. 8. <6-4건물지 출토 다양한 기종의 청자> Various Types of Celadon Excavated from Building Ruin No. 6-4 (<http://www.manwoldae.org/>, Edited by the author)

18 남창근, 「고려 본궤 만월대 주요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 32 (2020. 1), pp. 126-127.

『고려사』에서 장령전은 문서를 보관하거나 화엄경을 강독하고 우란분재와 같은 각종 도량을 열고 연회를 열어 예물을 하사하는 등의 공간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⁹ 또한 장령전에서 외국 상인들이 바치는 물건을 받고 그 가격을 방물(方物)로 계산하여 몇 배를 보상했다고 한다.²⁰ 왕이 장령전에 행차하여 신하들과 강독을 하고 도량을 열거나 50여인 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접견하고 예물을 하사하는 등의 행사를 거행하였다.²¹ 장령전으로 추정되는 6-1호 건물지의 바로 옆에 위치한 6-4호 건물지는 상인들이 바치는 방물을 포함하여 궁밖에서 들어오는 청자를 비롯한 여러 물건 및 왕의 하사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4호 건물지는 다른 건물지에서 출토되지 않은 투각기대, 향로 등 다양한 고급 기종의 청자들이 출토된 점도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Fig. 8).

반면에 6-11호 건물지는 길이가 잔존 51.9m, 너비 6m의 길고 좁은 회랑식 구조이며, 6-1호 건물지의 위쪽으로 6-2호 마당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다. 6-11호 건물지에서 공상용(供上用) 접각명 청자가 다량 출토되었기 때문에 왕실의 그릇을 관리하는 관청과 관련된 창고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²² 하지만 6-11호 건물지의 회랑식 구조와 주변 유구와의 관련성을 볼 때 그릇을 보관하는 창고나 건물을 연결하는 단순한 회랑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6-11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45점의 자기 중에 접시편이 28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건물지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6-4호 건물지에서 발, 접시, 기대, 향로, 매병, 잔, 각종 형태의 뚜껑 등 다양한 기종의 청자와 도기호 11점이 출토된 정황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장령전에서 거행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연회나 접견식은 실제로 6-11호 건물지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회 공간으로 추정되는 6-11호 건물지의 성격은 IV장에서 북송대 연회도와 비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건물지군은 훼손이 심하여 건물지의 기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서부 건축군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청자편들이 다량 출토되어 주목되는 공간이다. 7건물지군에서 출토된 12세기 청자는 위계가 높은 문양 소재가 많거나 북송대 황실용 청자였던 여요를 모방한 형태가

19 『高麗史』卷11 世家 卷第11 肅宗 元年; 同書 卷12 世家 卷第12 睿宗 元年; 同書, 卷13 世家 卷第13 睿宗 4年; 同書, 卷14 世家 卷第14 睿宗 10年.

20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第六 宮殿二 長齡殿, “長齡殿在乾德之東紫門內, 其制三間, 雖華煥不逮萬齡而規模過之, 每中朝使者欲行前, 期必有先書介紹, 至於此受之. 賈人之至境, 遣官迎勞, 舍館定然後, 於長齡受其獻, 計所直以方物, 數倍償之.”

21 『高麗史』卷13 世家 卷第13 睿宗 4年, “戊午 御長齡殿, 引見平虜關外蕃長等五十人, 賜酒食例物.”

22 김귀한, 앞의 논문, p. 74.

여러 점 확인되는 점에서 다른 건물지군과 차별화되는 특이성이 있다. 먼저, 서부건축군 전체에서 용문과 봉황문이 있는 청자의 출토량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용문청자는 전체 12점 중에 5점이, 봉황문청자는 전체 9점 중에 5점이 출토되었다. 용문청자의 기종은 합뚜껑, 매병, 타호, 접시로 다양하며, 봉황문 청자는 모두 접시로 추정된다(Figs. 9, 10). 특히 용문매병편은 강진 사당리요지에서 출토된 예와 전세품이 남아 있어서 완형을 추정할 수 있다(Fig. 11).²³ 용문이나 봉황문청자를 포함하여 품질이 좋은 청자편들은 대부분 강진 사당리요지에서 유사한 청자편이 확인되었다.²⁴ 저부가 남아있는 용문과 봉황문 청자는 8점이며, 모두 내화토 빚음을 번조 받침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내화토 빚음은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의 퇴적층 10- I 층과 II 층의 '가'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이다.²⁵ 요지의 퇴적 상황으로 볼 때 내화토 빚음은 대체로 12세기 전반 경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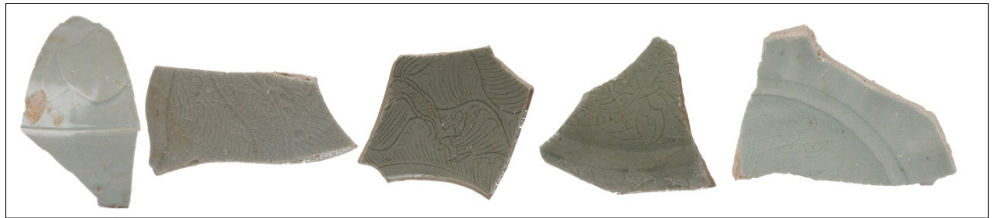


Fig. 9. <7건물지군 출토 용문 청자편> Fragments of Celadon with Dragon Design Excavated from Building Site Group No. 7, First half of the 12th Century, Koryŏ (<http://www.manwoldae.org/>)



Fig. 10. <7건물지군 출토 봉황문 청자편> Fragments of Celadon with Phoenix Design Excavated from Building Site Group No. 7, First half of the 12th Century, Koryŏ (<http://www.manwoldae.org/>)

²³ 강대규·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2015), pp. 192-193.

²⁴ 강대규·장성욱 편, 위의 책, pp. 126, 145, 149, pl. 209, 266, 277.

²⁵ 鄭良謨·具一會 편, 『康津 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본문 편』(국립중앙박물관, 1997), p. 215.



Fig. 11. <청자 양각용문 과형매병과 7건물지군 출토 용문청자편> Celadon Melon-shaped Maebyŏng with Carved and Incised Dragon Design and Fragment of Celadon with Dragon Design Excavated from Building Site Group No. 7, 12th Century, Koryŏ, Height 37.9c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ŏksu 4 (<https://www.emuseum.go.kr/main>, Edited by the author)



Fig. 12. <7건물지군 출토 여요풍의 고려청자편과 원형 추정도> Fragments of Koryŏ Celadon in the style of Ru Ware Excavated from Building Site Group No. 7 and Illustrations of their Assumed Original Forms (<http://www.manwoldae.org/>, Edited by the author)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북송대 황실용 자기로 사용된 여요 청자의 양식을 모방한 청자편들이 여러 점 확인된 것이다. <청자화형발편>, <청자접시편>, <청자투합편>, <청자침형병편>, <청자연판문합뚜껑편> 등은 모두 파편이지만 여요(汝窯) 청자를 모방하여 제작된 형태의 일부로서 그 원형을 추정할 수 있다(Fig. 12). 저부가 남아 있는 <청자접시편>과 <청자침형병편>은 굽바닥을 전면 시유한 후에 작은 규석을 받쳤으며 최고의 품질로 제작되었다.²⁶ <청자연판

²⁶ <청자침형병>은 보고서와 만월대 사이트에서 세 점의 파편을 확인하였으며, Fig 12에서 한 점으로 복원하였지만 각각

문합뚜껍편)은 하북성(河北省) 보풍현(寶豐縣) 청량사여요지(淸涼寺汝窯址)에서 출토된 합뚜껍과 전체적인 형태, 양각된 연판문 등이 매우 유사하다.²⁷ 다만 고려청자의 경우 뚜껍의 윗면에 용문이 음각되어 있어서 여요청자와 차이가 있다. <청자연판문합뚜껍편>은 여요 청자를 모방한 고려청자의 기종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례여서 학술적 의미가 더욱 크다.

12세기 전반 경에 고려 왕실이 북송 황실에서 사용하던 여요(汝窯) 청자를 모방한 청자를 사용한 정황은 강진 사당리요지, 전세품, 문헌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여요 청자가 북송 황실에서 사용된 시기가 철종(哲宗, 재위 1085~1100)과 휘종(徽宗) 연간(재위 1100~1125)이다.²⁸ 이를 모방한 고려청자가 제작된 시기는 대체로 예종연간(1106~1122)으로 보기 때문에 늦어도 인종연간(1123~1146)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²⁹ 1123년에 고려에 왔던 서궁도 자신이 왕실에서 본 고려청자가 여요 청자와 유사하다고 언급할 정도였다.³⁰ 고려 왕실에서 여요풍으로 제작된 다양한 기종의 청자를 사용한 정황이 궁성지에서 확인된 예는 처음이다. 이러한 기종 구성은 탁자 위에 차려지는 세트의 일부로 판단되며, 12세기 전반 왕실에서 사용한 여요풍 청자 그릇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7건물지군에서 출토된 12세기 청자의 양상을 볼 때, 서부건축군 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고급 품질의 청자가 사용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건물지군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급 청자가 출토되는 점을 고려하면 7건물지군이 국왕의 침실인 만령전으로 추정되는 견해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³¹ 그러나 6-2호나 6-3호 건물지를 만령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7건물지가 앞쪽에 위치한 9건물지군의 부속 건물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³²

한 점일 가능성도 있다.

27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淸涼寺汝窯』(鄭州: 大象出版社, 2008), pl. 彩板 115.

28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위의 책, pp. 139-140.

29 이회관, 「고려 예종과 북송 휘종-12세기 초기의 고려청자와 여요 및 북송관요」, 『해양문화재』 8 (2015), pp. 157-231.

30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第三十二 器皿三, “陶爐 狻猊出香, 亦翡色也。上爲蹲獸, 下有仰蓮以承之。諸器, 惟此物最精絕。其餘, 則越州古秘色, 汝州新窯器, 大槩相類。”

31 박성진, 「고려 궁城 正殿 배치관계 연구-제2정전 건덕전과 주변 전각(殿閣)의 배치관계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37 (2012, 12), pp. 235-239.

32 남창근, 「고려 본궤 만월대 주요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 32 (2020, 1), p. 127.

IV. 유구별 청자 출토 상황으로 본 공간적 맥락과 의미

II장에서 건물지군 내 유구별 도자의 출토 수량과 출토 세부 지점, 제작 시기 등을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유구별 분석이라는 미시적 접근법으로 확인한 일부 건물지의 청자의 특이한 출토 상황에 근거하여 성격을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건물지군 내 유구별 출토 도자의 제작 시기를 바탕으로 서부건축군의 영역별 사용 시기와 그곳이 사용된 주요 공간과 이동 경로 등을 공간적 맥락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발굴 조사된 9개의 건물지군에서 출토된 청자의 제작 시기를 볼 때, 서부건축군은 시기별 사용 영역이 크게 동쪽과 서쪽 건물지군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서부건축군에서 상단에 위치한 1, 2, 3건물지군부터 보면, 1건물지군에서 10세기경부터 13세기 초까지로 추정되는 청자편이 출토되는 반면에 3건물지군의 유구별 출토 청자는 11세기에서 12세기경과 14세기로 구분된다. 2건물지군에서도 14세기 이후에 제작된 자기편이 소량이지만 출토되었다. 즉, 1건물지군은 13세기 초까지 사용된 반면에 2, 3건물지군은 14세기부터 15세기 초에 제작된 청자가 출토되어 14세기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Fig.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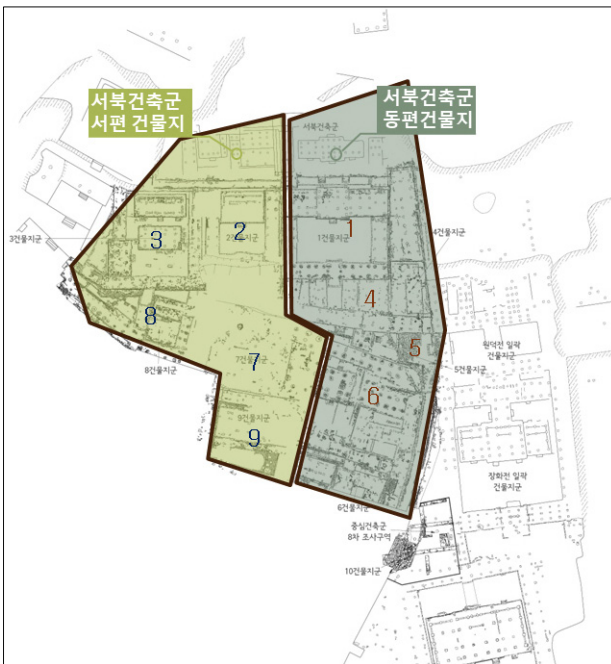


Fig. 13. <출토 청자의 제작 시기로 본 건물지군의 시기별 영역> Areas of Building Site Groups Categorized by Period based on the Production Period of Excavated Celadon (<http://www.manwoldae.org/>, Edited by the author)

서부건축군의 남북축선상에서 1, 2, 3건물지군의 하단에서도 청자의 이러한 출토 양상은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 1건물지군과 이어지면서 남쪽 하단에 위치하는 4, 5, 6건물지군에서도 10세기에서 13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청자가 출토되며, 대체로 11세기에서 12세기경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다르게 3건물지군의 남쪽 하단에 위치하는 8건물지군과 그 옆으로 이어지는 7건물지군에서는 14세기 상감청자가 출토되어서, 7, 8건물지군은 2, 3건물지군과 함께 14세기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서부건축군의 사용 시기가 동서 건물지군으로 나뉘지는 상황은 남북축선상 가장 위쪽에 위치한 서부건축군에서도 볼 수 있다(Fig. 13). 현재 서부건축군에서 출토된 도자에 대해서는 보고된 내용이 없지만 1, 2, 3건물지군의 북쪽 축대에서 출토된 자기가 서부건축군과 관련될 가능성을 II장에서 설명하였다. 서부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을 나누는 축대는 서부건축군의 북쪽에 위치하며, 높이가 1-1호 축대는 150~200cm, 2-1호와 3-1호 축대는 200~370cm 정도이다. 따라서 1, 2, 3건물지군의 축대에서 출토된 도자편은 모두 서부건축군에서 흘러내려 왔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에서 1, 2, 3건물지군의 북쪽 축대라는 점만 인지하고 유구의 성격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토된 자기도 해당 건물지군에서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축대의 위치와 높이를 고려할 때 출토된 도자는 서부건축군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건물지군의 북쪽에 위치한 1-1호 축대에서 총 24점의 자기편이 확인되었으며, 21점은 11세기에서 12세기경에 제작된 고려청자이다. 이 중 세 점의 중국 자기는 요주요 청자편, 경덕진요 청백자편, 흑유자편으로 모두 북송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건물지군의 2-1호 축대에서도 10여점의 청자가 출토되었으며 제작 시기는 10세기부터 13세기 초까지 볼 있다. 3건물지군의 3-1호 축대의 경우 14세기에서 15세기 초의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즉, 서부건축군에서 확인된 동편과 서편의 건물지도 동편 건물지는 13세기 초까지, 서편 건물지는 최대 15세기 초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물지군 내 유구별 자기의 출토 상황을 기준으로 건물지군의 사용 시기를 보면, 서부건축군의 동편 건물지와 서부건축군에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1, 4, 5, 6건물지군은 13세기 초까지 사용되다가 개경 환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왼쪽에 위치하는 서부건축군의 서편 건물지부터 2, 3, 7, 8 건물지군은 1270년 개경 환도 이후에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Fig. 13).

다음은 건물지군별로 도자가 출토되는 주요 유구를 연결하여 그릇의 사용 공간과 이동 경로를 공간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건물지군과 4건물지군은 남북으로 이어져

있으며, 청자의 출토 상황을 보면 공간적으로 연결성이 보인다. 1건물지군에서 청자는 1-1호, 1-6호, 1-7호 건물지에서만 출토되었고 1-2호, 3호, 4호 건물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이외에 청자가 출토된 지점은 1-3호, 1-7호 배수로와 1-1호, 1-2호 축대이다. 특히 1-3배수로 는 1-1 건물지부터 1-3호 건물지까지 약 40m로 길게 이어지지만 출토된 청자 8점 중 7점이 1-1호와 1-7호 건물지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1건물지군에서 그릇의 사용 공간과 이동 경로가 ‘ㄱ’자 형에 해당하는 1-1호, 1-6호, 1-7호 건물지에서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건물지군은 5호, 6호, 7호, 8호 건물지에서 자기의 출토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4-7호 건물지에서 포개구이 자기편과 청자기와 등이 확인된 점이나 4-6호 건물지에서 도기병과 도기호 3점이 함께 출토되는 점에서 그릇을 사용하고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건물지군과 4건물지군에서 자기가 출토되는 주요 지점을 연결해 보면, 자기 그릇의 주요 사용 공간과 이동은 ‘ㄷ’형을 보여서 두 건물지군 간에 공간적 연결성을 볼 수 있다 (Fig. 14). 현재 4건물지군이 1건물지군의 부속 시설로 사용되었다는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4-6호 건물지에서 1건물지군 동측의 1-7호 건물지를 연결하는 출입문이 위치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³³ 1건물지군과 4건물지군에서 출토된 청자의 이동 경로가 건축적으로도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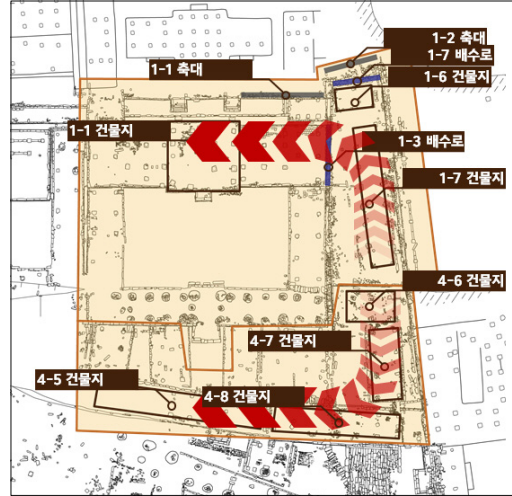


Fig. 14. 〈1·4 건물지군에서 보이는 청자의 주요 사용 공간과 이동 경로〉 Primary Areas and Paths of Circulation Dedicated to Celadon Observed in Building Site Groups No. 1 and 4 (http://www.manwoldae.org/, Edited by the author)

5건물지군과 6건물지군도 유구별 청자의 출토 양상을 통해서 공간이 연결되는 흐름이 보인다. 먼저 6건물지군에서 도자가 출토되는 주요 유구는 6-4호, 6-11호, 6-8호, 6-10호, 6-12호 건물지, 6-5호 배수로, 6-1호 우물 주변이다. 이 유구들을 연결하면 6건물지군에서 청자의 주요 사용 범위와 이동 경로가 ‘ㄱ’자형으로 만들어진다 (Table 6, Fig. 15). 6건물지군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면서 5건물지군과 연결되는 공간이 6-11호 건물지이다. II장에서 6-11호 건물지

33 우성훈, 「개성 만월대 4건물지군 재고」, 『제3회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학술대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4), p. 43.

에서 다량의 점각명칭자가 출토된 점을 설명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6-11호 건물지와 접하고 있는 6-5호 배수로, 6-2호 마당, 5-3호 마당, 5-2호 배수로, 5-1호 대형계단에서 모두 동일한 유형의 점각명칭자가 출토되었다(Table 8, Fig. 16).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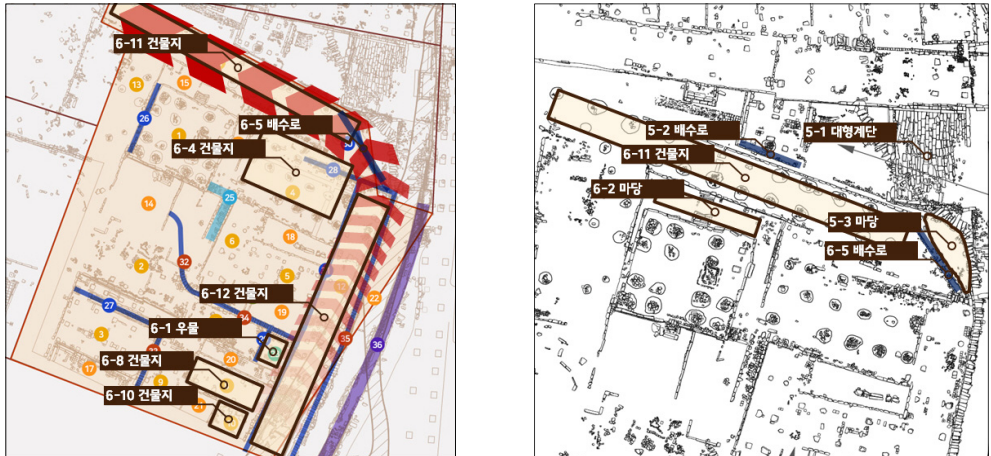


Fig. 15. <6건물지군의 청자의 주요 사용 공간과 이동 경로> Primary Areas and Paths of Circulation Dedicated to Celadon Observed in Building Site Group No. 6 (<http://www.manwoldae.org/>, Edited by the author)
 Fig. 16. <점각명칭자가 출토되는 6-11호 건물지와 인접 유구> Building Ruin No. 6-11 and Adjacent Ruins where Celadons with Dot-engraved Inscriptions were Excavated (<http://www.manwoldae.org/>, Edited by the author)

5, 6건물지군에서 점각명 청자가 출토된 유구의 성격을 보면, 6-11호만 건물지이고 나머지 유구는 모두 6-11호 건물지와 인접한 배수로, 마당, 계단이다. 6-11호 건물지를 제외한 나머지 유구는 그것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로나 마당에서 출토된 청자는 건물지에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즉, 6-11호 건물지의 주변 유구에서 출토된 자기는 유구의 성격과 공간적 맥락에서 볼 때 6-11호 건물지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1호 대형계단

³⁴ <Table 8>에 제시된 유구별 점각명칭자의 수량은 김귀한의 선행 연구와 출토 유구와 수량에 차이가 있다. 김귀한의 논문 <Table 4>에서 제시된 점각명칭자의 출토 유구와 수량은 유구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건물지만을 기준으로 파악한 수량으로 오류가 있음을 일러둔다. 예를 들어 5건물지군은 배수로(5점), 대형계단(2점), 마당(1점)에서 출토되었지만 5건물지군 건물지 1호 8점, 건물지 2호 1점으로 기재하여 출토된 유구의 성격과 주변 유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6건물지군도 6-1호 건물지의 북쪽 마당(6-2호 마당)에서 출토된 것을 6-1호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본고의 <Table 8>과 차이가 있다.

의 경우 중심건축군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출토된 자기의 수량이 다른 유구보다 많고 14세기 상감청자가 포함되어 있다. 5-1호 대형계단 외에 6-11호 건물지의 주변 유구에서 출토된 청자는 대부분 10세기에서 12세기경에 제작된 것이다.

〈Table 8〉 〈6-11호 건물지 및 인접 유구 출토 자기 및 점각명청자〉 Celadons and Celadons with Dot-engraved Inscriptions Excavated from Building Ruins No. 6-11 and Adjacent Ruins

Building Ruins No. 6-11 and Adjacent Ruins	Celadons with Dot-engraved Inscriptions		Total Quantity of Celadon
	Inscription	Quantity	
Building Ruins No. 6-11	供上, 供, 尙, 竹, 中尙, 新, 玄	37	45
Drainage Ruins No. 6-5	新上, 供上	2	17
Yard No. 6-2	玄尙, 供, 供上	3	9
Large Staircase No. 5-1	井, 尙	2	53
Drainage Ruins No. 5-2	尙, 竹, Unknown	5	31
Yard No. 5-3	新上	1	5

6-11호 건물지와 주변 유구와의 관계를 볼 때 6-11호 건물지에서 다량의 자기가 사용된 정황을 볼 수 있다. III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요 전각인 6-1호 건물지가 장령전이라면 6-11호 건물지의 회랑식 구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연회와 접견식을 거행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할까?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된 북송대 〈궁중연회도〉에서 유사한 구조의 건물에서 연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궁중연회도〉는 궁중에서 열린 연회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경에 북송 황실의 화원 화가에 의해 그려졌다.³⁵ 연회가 열리는 중심 공간은 연회도의 중하단에 위치한 기다란 회랑식 누각이다. 연회 공간에 위치한 흑칠의 장방형 탁자 위에 많은 그릇이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 연회를 준비하는 궁녀들의 모습이 분주하다(Fig. 17).

³⁵ John P. O'Neill, *Along the Riverbank: Chinese Painting from the C. C. Wang Family Collection*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9), pp. 5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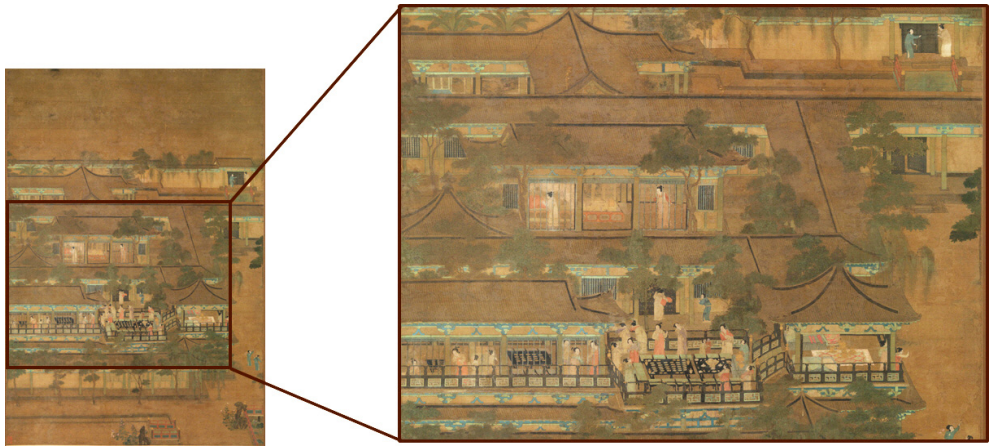


Fig. 17. <宮中宴會圖> *Palace Banquet*, Late 10th to 11th Century, Northern Song (960~1127), 161.6×110.8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9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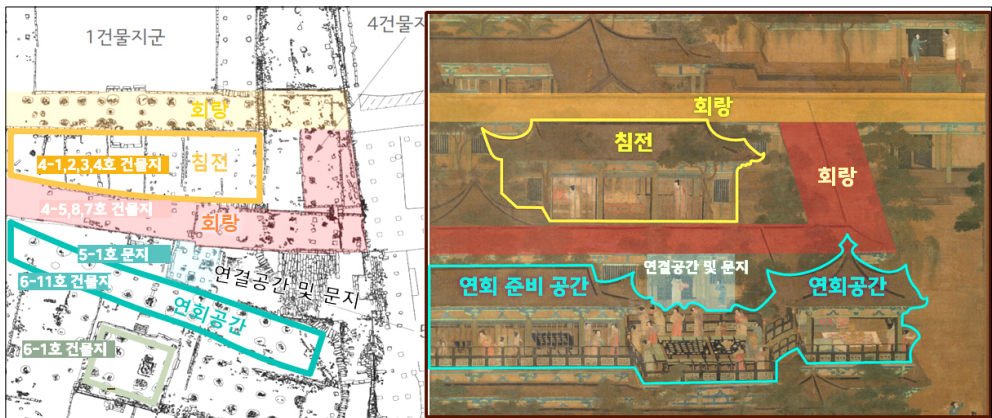


Fig. 18. <6-11호 건물지에서 5, 4, 1 건물지군으로 연결되는 공간과 <宮中宴會圖>의 공간 구조 비교> A Comparison Between the Space where Ruin No. 6-11 is Connected to Building Site Groups No. 5, 4, and 1 (Left), and the Layout of Structures Illustrated in *Palace Banquet* (Right) (Figs. 1, 17, Edited by the author)

<宮中宴會圖>에서 연회가 열리는 회랑식 누각과 6-11호 건물지를 시작으로 5, 4, 1 건물지군이 연결되는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Fig 18을 보면 6-11호 건물지의 가운데 부분에 5-2호 배수구가 있고 5-1호 문지에서 4건물지군으로 이어진다. 4-5호, 4-8호, 4-7 건물지는 길게 이어지면서 오른쪽에서 꺾인 회랑이고, 그 안쪽에 4-1호부터 4호까지 건물지가 위치한다. 6-11호 건물지부터 이어지는 유구를 <宮中宴會圖>와 비교해 보면, 연회 공간→연결 공간 및 문지→회랑→침전

→회랑의 순으로 연결된다(Fig. 18).

6-11호 건물지는 단순한 회랑이나 기물의 보관 창고보다 <궁중연회도>에서처럼 복층 누각과 테라스, 회랑의 복합 구조이면서 연회를 준비하고 연회를 여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11호 건물지와 그 주변의 마당과 배수로에서 적지 않은 수량의 자기가 출토되고 다른 건물지보다 접시의 수량이 많은 점도 주목하여 볼 수 있다. <궁중연회도>에 묘사된 흑칠의 장방형 탁자를 보면, 접시로 보이는 동일한 기종의 그릇이 약 30여 개씩 놓여 있다(Fig. 19). 6건물지군에서 출토되는 청자의 기종과 수량으로 볼 때, 6-4호 건물지는 각종 기물과 예물의 보관 및 관리 창고로, 6-11호 건물지는 연회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건축군의 동편에 위치하면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3건물지군과 8건물지군은 14세기 청자가 전체 유구에서 고루 출토되고 있어서 개경 환도 이후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건물지군은 3-3호, 3-7, 3-8호 건물지가 자기를 사용한 주요 공간이며, 건물지군의 왼쪽에 치우쳐 있다. 3-8호 건물지는 66㎡의 작은 규모이며 3건물지군에서 가장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 1건물지군에서도 자기의 출토 수량이 많았던 1-6호 건물지도 61㎡의 면적이면서 건물지군의 북동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 1-6호, 3-8호 건물지는 각 건물지군 내에서 청자 그릇의 관리 공간의 규모와 위치를 가늠하는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8건물지군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자의 주요 사용 공간은 8-3호 마당, 8-5호 건물지이다. 8-3호 마당의 동편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3건물지군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Fig. 20).



Fig. 19. <궁중연회도>(세부) Detail of Palace Banquet (Fig.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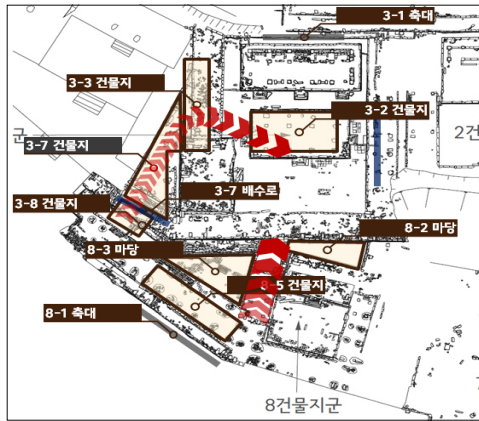


Fig. 20. <3·8건물지군에서 보이는 청자의 주요 사용 공간과 이동 경로> Primary Areas and Paths of Circulation Dedicated to Celadon Observed in Building Site Groups No. 3 and 8

(<http://www.manwoldae.org/>, Edited by the author)

V. 맺음말

본고에서는 건물지군 내에서 출토되는 자기를 유구별로 분석하여 자기 그릇의 주요 사용 공간과 흐름을 공간적 맥락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고를 작성하였다. 서부건축군에서 출토되는 자기는 이미 네 권의 발굴보고서와 만월대 사이트에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서부건축군 출토 청자는 고려시대 왕실용 자기의 최대 소비처였던 궁성에서 사용된 면모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라는 중요성이 있다. 즉, 이 자료들의 출처가 고려 궁성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출토된 자기만을 다루기보다 궁성이라는 공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고학에서 유적을 구성하는 ‘유구(遺構)’라는 최소한 공간을 단위로 하여 각각의 유구에서 출토된 자기를 분석한 후에 공간을 연결하는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9개의 건물지군은 각각 다른 성격의 유구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출토 유물들을 유구에 따라서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건물지군별로 자기 그릇의 주요 사용 공간과 범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4-7호 건물지, 6-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특이점을 통해 왕실용 자기의 선별 과정이 궁성 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또한 7건물지군에서 12세기 전반 경에 북송 황실에서 사용한 여요 청자를 모방한 고려청자가 왕실에서 사용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자의 출토 상황으로 볼 때, 6-4호 건물지는 왕실 창고로, 6-11호 건물지는 연회 공간으로, 7건물지군은 국왕이 머무는 만령전과 같은 위계가 높은 건물이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구별 청자의 출토 상황을 기준으로 건물지군의 사용 시기를 보면, 서북건축군의 동편 건물지와 서부건축군에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1, 4, 5, 6 건물지군은 13세기 초까지 사용되다가 개경 환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왼쪽에 위치하는 서북건축군의 서편 건물지부터 2, 3, 7, 8 건물지군은 1270년 개경 환도 이후에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keywords)_서부건축군(western architectural group), 왕실용 청자(royal celadons), 유구별 분석(analysis of each ruin), 공간적 맥락(spatial context), 고려 궁성(Koryŏ palace)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2. 한국어 문헌

강대규·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2008.

_____, 『개성 고려궁성』, 2009.

_____,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 2012.

_____,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2015.

_____,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I』, 2020.

_____,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V』, 2023.

김귀한, 「개성 고려 궁성 출토 點刻銘 초기청자의 성격과 제작 배경」, 『인문과학연구논총』 45, 2024. 8.

김윤정, 「北宋代 貢瓷에 대한 인식과 定窯와 汝窯의 성격」, 『중국사연구』 98, 2015. 1.

남창근, 「고려 본궤 만월대 주요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 32, 2020. 1.

박성진, 「고려 宮城 正殿 배치관계 연구-제2정전 건덕전과 주변 전각(殿閣)의 배치관계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37, 2012. 12.

박지영, 「고려궁성(만월대) 출토 청자로 본 건물지군의 성격」, 『한국사학보』 79, 2020. 5.

_____,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호 청자 고찰」, 『문화재』 52, 2019. 6.

우성훈, 「개성 만월대 4건물지군 재고」, 『제3회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학술대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4.

이상준, 「고려궁성 '서편건축군' 가-다 건물지의 성격」, 『개성 고려궁성』,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이희관, 「康津 沙堂里窯場 瓷器製作의 實狀과 特質」, 『해양문화재』 11, 2018.

_____, 「고려 예종과 복승 휘종-12세기 초기의 고려청자와 여요 및 복승관요」, 『해양문화재』 8, 2015.

전현기, 「부안 유천리 청자 가마와 공간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鄭良謨·具一會 편, 『康津 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查報告書-본문 편』, 국립중앙박물관, 1997.

한성욱, 「高麗 陰刻 '○'文과 '●'文靑瓷의 研究」, 『고문화』 70, 2007. 12.

홍영의,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2012. 1.

3. 동양어 문헌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鄭州: 大象出版社, 2008.

4. 서양어 문헌

O'Neill, John P. *Along the Riverbank: Chinese Painting from the C. C. Wang Family Collection*,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9.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Koryŏsa[*History of Koryŏ*]

Sŏnhwabongsagoryŏdogyŏng[*Illustrated Accounts of Koryŏ*]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ŏn, Hyŏnki (Jeon, Hyeon-Gi). "Puan Yuch'ŏn-ri ch'ŏngja kama wa konggan'gujo yŏn'gu[A Study on the Koryŏ Celadon Kiln and Space Structure in Puan Yuch'ŏn-ri]."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23.

Chŏng, Yangmo (Chung, Yang-mo), and Ilhoe Ku (Ill hoe Koo) ed. *Kangjin Yongun-ri ch'ŏngja yoji palgul chosa pogosŏ-ponmun p'yŏn*[*Excavation Report of Celadon Kiln Sites in Yongun-ri, Kangjin*]. Sŏ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1997.

Han, Sŏnguk (Han, Seong-Uk). "Koryŏ ūmgak '○' mun kwa '⊙' mun ch'ŏngja ūi yŏn'gu[A Study on Koryŏ Celadons of Intaglio '○' Pattern and '⊙' Pattern]", *Komunhwa* 70 (December 2007): 133-162.

Hong, Yŏngŭi (Hong, Young-Eui). "Koryŏ kunggwŏl nae Kyŏngnyŏngjŏn ūi kujo wa unyong[The Structures and Processes of the Kyŏngnyŏngjŏn in Palace During the Koryŏ Dynasty Period]", *Han'guk'ak nonch'ong* 37 (January 2012): 67-91.

I, Hŭigwan (Lee, Heegwan). "Koryŏ Yejong kwa Puksong Hwijong-12 segi ch'ogi ūi Koryŏ ch'ŏngja wa Yŏyo mit Puksong kwanyo[Emperors Yejong of Goryeo and Huizong of the Northern Song: Goryeo Celadon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Ru Wares and Northern Song Official Wares]", *Haeyang munhwajae* 8 (December 2015): 155-233.

_____. "Kangjin Sadang-ri yojang chagi chejak ūi silsang kwa t'ŭkchil-Sadang-ri yojang ūi sŏnggyŏk e taehan pigyosajŏk chŏpkŭn[The Condition and Characteristic of the Production of Ceramics in the Sadangri Kilns in Gangjin]: A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dangri Kilns]", *Haeyang munhwajae* 11 (January 2018): 113-152.

I, Sangchun (Lee, Sang-Joon). "Koryŏ Kungsŏng sŏp'yŏn kŏnch'ukkun' ka-ta kŏnmulchi ūi sŏnggyŏk," in *Kaesŏng Koryŏ kungsŏng*.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09.

Kang, Taekyu (Kang, Dae-gyu), and Sŏnguk Chang (Sung-wook Jang) ed. *Kangjin Sadang-ri toyoji palgul chosa pogosŏ*[*Excavation Report of Kiln Sites in Sadang-ri, Kangjin*]. Sŏ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15.

Kim, Kwihan (Kim, Kwi-han). "Kaesŏng Koryŏ kungsŏng ch'ult'o chŏmgangmyŏng ch'ogi ch'ŏngja ūi sŏnggyŏk kwa chejak paegyŏng[Characteristics and Production Background of Early Celadon

- Dot-engraved Inscriptions Excavated from Goryeo Palace in Kaesong]", *Inmun'gwahak yŏn'gu nonch'ong* 45 (August 2024): 63-95.
- Kim, Yunchŏng (Kim, Yun-jeong). "Puksongdae kongja e taehan insik kwa Chŏngyo wa Yŏyo ūi sŏnggyŏk[Perceptions of Ceramic Wares as Tributes and Characteristics of Dingyao and Ruyao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Chungguksa yŏn'gu* 98 (January 2015): 67-93.
- Kungnip munhwajae yŏn'gus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aesŏng Koryŏ kungsŏng[The Royal Koryŏ Palace in Kaesŏng]*. Taejŏn-si: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08.
- _____. *Kaesŏng Koryŏ kungsŏng[The Royal Koryŏ Palace in Kaesŏng]*. Taejŏn-si: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09.
- _____. *Kaesŏng Koryŏ kungsŏng nambuk kongdong palgul chosa pogosŏ[North-South Cooperative Excavation Report of the Royal Koryŏ Palace in Kaesŏng] I*. Taejŏn-si: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12.
- _____. *Kaesŏng Koryŏ kungsŏng nambuk kongdong palgul chosa pogosŏ[North-South Cooperative Excavation Report of the Royal Koryŏ Palace in Kaesŏng] II*. Taejŏn-si: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15.
- _____. *Kaesŏng Koryŏ kungsŏng nambuk kongdong palgul chosa pogosŏ[North-South Cooperative Excavation Report of the Royal Koryŏ Palace in Kaesŏng] III*. Taejŏn-si: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20.
- _____. *Kaesŏng Koryŏ kungsŏng nambuk kongdong palgul chosa pogosŏ[North-South Cooperative Excavation Report of the Royal Koryŏ Palace in Kaesŏng] IV*. Taejŏn-si: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23.
- Nam, Ch'angkŭn (Nam, Chang-Keun). "Koryŏ pon'gwŏl Manwŏltae chuyo chŏn'gak wich'i wa paech'i ch'egye[The Architectural Arrangement and Layout of Manwŏltae, the Principal Palace of Koryŏ]", *Chungang kogo yŏn'gu* 32 (January 2020): 105-140.
- Pak, Chiyŏng (Park, Ji-young). "Koryŏ kungsŏng ch'ult'o myŏngmun · kiho ch'ŏngja koch'al[A Study on Inscribed Celadons Excavated from the Goryeo Palace Site]", *Munhwajae* 52 (June 2019): 122-141.
- _____. "Koryŏ kungsŏng(Manwŏltae) ch'ult'o ch'ŏngja ro pon kŏnmul chigun ūi sŏnggyŏk[An Educated Guess as to the Nature of a Group of Building Sites Based on the Celadons Unearthed from Manwŏltae, a Royal Palace the Goryeo Dynasty]", *Han'guksa hakpo* 79 (May 2020): 35-63.
- Pak, Sŏngchin (Park, Sung-Jin). "Koryŏ kungsŏng chŏngjŏn paech'i kwan'gye yŏn'gu-che 2 chŏngjŏn kŏndŏkchŏn kwa chubyŏn chŏn'gak ūi paech'i kwan'gye rŭl chungsim ũro-[A Study on Distribution Pattern of Goryeo Royal Palace Main Hall]", *Sŏnsa wa kodae* 37 (December 2012): 223-247.
- U, Sŏnghun (Woo, Sung-hun). "Kaesŏng Manwŏltae 4 kŏnmuljigun chaego." in *Che 3-hoe Kaesŏng Manwŏltae tijit'ŏl pokwŏn haksul taehoe*. Nambuk yŏksa hakcha hyŏbŭihoe, 2024.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Hebei sheng wenwu kaogu yanjiusuo (Hebei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Baofeng qingliangsi Ruyao. Zhengzhou: Daxiang chubanshe, 2008.

4. Secondary Sources in English

O'Neill, John P. *Along the Riverbank: Chinese Painting from the C. C. Wang Family Collection*.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9.

국문초록

본고는 고려 궁성 서부건축군에서 출토된 자기 약 1182점과 도기 약 152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약 1048점의 고려청자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9개의 건물지군 내에서 출토되는 청자를 유구별로 분석하여 청자 그릇의 주요 사용 공간과 흐름을 공간적 맥락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고를 작성하였다. 서부 건축군 출토 청자는 고려시대 왕실용 자기의 최대 소비처였던 궁성에서 사용된 면모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라는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고고학에서 유적을 구성하는 ‘유구(遺構)’라는 최소한 공간을 단위로 하여 각각의 유구에서 출토된 자기를 분석한 후에 공간을 연결하는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9개의 건물지군은 각각 다른 성격의 유구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유구별로 출토된 자기를 분석하여 건물지군 내에서 자기 그릇의 주요 사용 공간과 범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4-7호 건물지, 6-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특이점을 통해 왕실용 청자의 선별 과정이 궁성 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7건물지군에서 12세기 전반 경에 복송 황실용 여요 청자를 모방한 고려청자가 사용된 정황을 확인하여 국왕이 머무는 위계가 높은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구별 자기의 출토 상황을 기준으로 건물지군의 사용 시기를 보면, 서부건축군의 동편 건물지와 서부건축군에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1, 4, 5, 6 건물지군은 13세기 초까지 사용되다가 개경 환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왼쪽에 위치하는 서부건축군의 서편 건물지부터 2, 3, 7, 8 건물지군은 1270년 개경 환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the Celadons Excavated from Each Ruin of the Western Architectural Complex of the Koryŏ Palace

Kim Yunjeong*

This study examines approximately 1,182 stoneware pieces and 152 earthenware pieces excavated from the western architectural complex of the Koryŏ royal palace, focusing primarily on around 1,048 pieces of Koryŏ celadon from Building Sites No.1 to No.9. By analyzing the celadon from each ruin within the nine-building site complex, this study emphasizes the spatial context to identify the primary usage areas and the flow of these ceramic vessels.

As the first data set demonstrating the use of ceramics in the Koryŏ royal palace, which was the largest consumer of royal ceramics during the Koryŏ period, these findings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Adopting a micro-level approach focused on ‘ruins,’ this study categorizes the excavated artifact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archaeological feature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spatial units.

Due to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the nine architectural complexes, the analysis identifies the primary areas, ranges, and movement paths of ceramic vessels within each ruin. Notably, unique characteristics of celadon excavated from ruins no. 4-7 and no. 6-4 suggest that the selection of royal-use celadon might have occurred within the palace. Furthermore, evidence from Building Sites No. 7 indicates that celadon modeled after Northern Song royal Ru ware was used in the Koryŏ royal court during the early 12th century, suggesting that this was a high-ranking space where the king resided.

Lastly, an examination of the distribution of Koryŏ celadons within each ruin of these building site complexes suggests temporal patterns in the use of the architectural complexes. The eastern building site of the Northwestern Architectural complex and Building sites No. 1, 4, 5, and 6 on the Western Architectural complex appear to have been used until the early 13th century but likely fell out of use following the Koryŏ

* Professor,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Convergence, Korea University

court's return to Kaegyŏng in 1270. In contrast, the western building site of the Northwestern Architectural complex and Building sites no. 2, 3, 7, and 8 on the Western Architectural complex were likely in use even after the court's return in 1270.